

대입 수시지원 진학상담실 운영

전북자치도교육청, 26~28일 학생부종합전형 상담...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수시 집중 상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학년도 대입 수시 지원을 위한 진학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진학상담은 본청과 14개 교육지원청에서 매주 실시하는 지역별 상시 대면상담과 연계해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오는 26~28일까지는 전주비전대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전문상담을, 이어 30일부터 9월 6일까지는 본청과 6개 시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수시지원 대면·화상 상담을 운영한다.

먼저 학생부종합전형 전문상담은 학생부 분석을 할 수 있는 공공입학사정관과 전직 입학사정관, 전북 대입지원단의 팀장급 교사를 상담자로 위촉해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방법과 면접 평가 요소에 대해 집중 안내한다. 상담 참여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갖고 방문해야 한다.

수시 집중 대면·화상상담은 전북교육청 진로진학통합센터에서 운영한다. 평일은 오후 4시~10시까지, 토·일요일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다.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 6개 교육지원청에서는 3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학생부, 모의 평가 성적표,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등 수시 전형 지원과 관련된 개인자료를 지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이번 상담실 운영을 위해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전북 대입지원단 진학상담교사 44명을 배정했다.

한편 수시 집중 상담을 원하는 학

생·학부모는 전북 진로진학누리집(<http://www.jbe.go.kr/jinro>)에서 '대입 상담 신청' 배너를 클릭한 후 사전 신청하면 된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지역별 상시 대면상담도 지속할 예정"이라면서 "올해 수시는 의대 증원과 자율전공선택제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어려움이 큰 만큼 최대한 많은 상담 프로그램을 개설·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도내 대학 202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잇따라



22일 오전 10시 전대학술문화회관에서 전북대학교 202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거행된 가운데, 졸업생들이 학사모를 위로 던져올리고 있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북대, 1691명 학·석·박사 배출... 양오봉 총장 '도전·소통' 강조

전북대학교 202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22일 오전 10시 전대학술문화회관에서 거행됐다.

이에 따르면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본부 보좌자 및 학부위원, 역대 총장단, 최병준 총동창회장, 졸업생 및 학부모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양 총장은 이날 192명의 박사과 441명의 석사, 1,058명의 학사 등 모두 1,691명의 졸업생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또한 김민주 학생(농업생명과학대학)을 비롯한 89명의 우수졸업생과, 한민경 학생(농업생명과학대학) 등 11명의 핵심인재상, 그리고 부반부 학생(공과대학) 등 35명의 우수연구 학생에게도 상장을 수여했다.

이날 양오봉 총장은 학위수여식사를 통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전북대학교 202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양오봉 총장이 학위수여식사를 하고 있다.

졸업생들에게 원대한 꿈과 도전하는 자세,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인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험 없이 달려온 졸업생 여러분에게 뜨거운 찬사를 보낸다"며 "그동안 전북대학교에서 불태웠던 열정과 패기로 이 거친 세상과 맞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AI와 빅데이터로 대변되는 현대사회는 타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능동적으로 협력하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며 "치열하고 냉정한 경쟁사회에서 자신을 낮추고 서로 힘을 합쳐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화합형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398명 학·석·박사학위 수여... 박노준 총장 "당당한 인재로 성장해달라"

우석대학교 202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22일 대학 본관 5층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박노준 총장과 우용득 대학원장, 교무위원, 학부모 등이 참석해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졸업생들의 앞날을 응원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학사 226명, 석사 103명, 박사 69명 등 총 398명이 학위를 받았다.

또한 대학원에서 장립명(체육학과) 박사가 이사장상을, 우혜연(아동복지학과) 박사 외 6명이 총장상을, 이영섭(스포츠복지교육학과) 박사 외 8명이 대학원장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노준 총장은 식사를 통해 "불굴의 도전정신과 무한한 가능성을 겸



우석대학교 202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22일 대학 본관 5층 시청각실에서 거행된 가운데, 박노준 총장이 졸업생에게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비한 우석인으로서, 사회에 보탬이 되는 당당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025학년도 교원임용시험 공개설명회 개최... 2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5학년도 교원임용시험 공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전북교육청의 유·초·중등(사립포함) 교원임용시험에 관심 있는 도민과 응시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원임용시험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시험 기간 중 집중적 문의(민원) 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응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설명회는 △교원임용시험 경험을 공유하는 '선배와의 대화'를 비롯해 △온라인 원서 접수 요령 △공·사립 동시 지원제도 △응시자 유의사항(부정 행위 예방) △시험관련 각종 문의(민원) 사례 등으로 운영된다.

참가 신청은 온라인(<https://naver.me/xGI0BTm>) 또는 QR코드를 스캔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성기 교원인사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미래교육을 이끌어 갈 우수교사를 선발하는 교원임용시험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라면서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고, 더불어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임용시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유아교육진흥원, 공사립유치원 교사 미래교육 역량 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원장 강혜정)은 20~22일 3일간 공·사립유치원 교사 40명을 대상으로 미래교육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무연수는 △미래를 여는 유치원 디지털 교육 방향 △유아 미래 역량을 위한 디지털 윤리교육 △디지털 놀이 사례: 언플러그드 및 코딩 놀이, AI 플랫폼 활용 놀이, 유아 중심 디지털 놀이 △유아의 창의력 확장을 위한 멀티그림책 만들기 △퇴근을 앞당기는 챗GPT 활용 △초간단 유치원 홍보영상 만들기 △캔바를 활용한 유치원 안내장 만들기 등 다양한 주제로 교육과 실습이 병행됐다.

특히 기본·심화과정으로 나뉜 에듀테크 실습을 통해 교사들이 직접 디지털 놀이자료를 제작하고, 이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별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중점으로 다뤘다.

강혜정 원장은 "유치원 교사들이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유아 중심의 디지털 놀이교육과정 운영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의 해외 바이어 매칭 및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22~24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열리는 'MEGA US EXPO 2024'에 참가한다.

자회사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전주대 기술지주회사, 'MEGA US EXPO 2024' 참가

전주대학교 기술지주회사(대표이사 김상진)가 자회사의 해외 바이어 매칭 및 판로 개척 지원에 나섰다.

이를 위해 기술지주회사는 22~24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열리는 'MEGA US EXPO 2024'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김상진 대표이사는 "지주회사에서 처음으로 추진한 해외 마케팅 활동을 시작으로 자회사의 우수한 제품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앞으로도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자회사의 대내외 성장 및 매출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전주대학교 기술지주회사는 2019년 설립, 27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회 참가는 그동안 기술지주회사의 국내 시장에 집중했던 마케팅 전략을 넘어 해외 유통망과 마케팅 채널 확보 등 자회사 해외 판로 개척의 견인차로 의미가 크다.

김상진 대표이사는 "지주회사에서 처음으로 추진한 해외 마케팅 활동을 시작으로 자회사의 우수한 제품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앞으로도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자회사의 대내외 성장 및 매출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전주대학교 기술지주회사는 2019년 설립, 27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청년고용을케어 플랫폼 시범 사업 선정

호남권역에서는 '유일'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센터장 신숙경)는 청년고용을케어 플랫폼 시범 사업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이 사업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대학 중 단 8곳만이 선정된 가운데, 전주대학교는 전라권 대학을 대표해 참여했다. 이를 통해 전주대학교는 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및 진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전주대학교는 미취업 졸업생의 잠재적 가치를 발견하고 역량을 강화해 취업 시까지 지원하는 'JJ 500 Value Up Project'를 운영, 졸업생들의 취업 준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미취업 졸업생 전수 조사를 통해 집중 관리 대상 500명을 발굴해 진로 강의를 분석하고, 유형별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어 구직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집단상담, 희망 분야별 스터디 그룹 지원, 졸업생 현직자 멘토를 활용한 멘토링 프로그램, 직무 역량 및 구직 스킬 강화 교육 등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취업 시까지 책임질 예정이다.

신숙경 센터장은 "이번 사업 선정은 우리 대학이 청년 취업 지원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재학생과 졸업생은 물론 지역 청년들까지 폭넓은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교원양성과정 개선 대학 지원사업 선정

청주교대 등과 연합체 구성 실습중심·융합형 교육과정 개발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2024 교원양성과정 개선 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디지털 대전환의 방향을 이해하고, 학교 현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 혁신을 지원하고자 올해 처음 추진한 사업이다.

이에 전주교대는 청주교대·광주교대·공주교대와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 △B 등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전공 교과목 개발 △예비교원 다역량 강화를 위한 실습중심, 융합형 교육과정 개발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주교육대학교 전경

박병춘 총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우리 대학은 미래 교육 환경 변화를 선도하고, 현장 이해도가 높은 다역량 교원을 양성하는 혁신적인 교육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원광보건고, 오늘까지 이틀간 '진로진학 박람회' 개최

원광보건고등학교(교장 윤태훈)는 22일(전문대)과 23일(4년제대) 양일간 교내에서 진로진학(학과)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로 행복 한 '나'를 디자인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12개 전문대학 64개 학과를, 13개 4년제 대학 39개 학과를 각각 초청했다.

특히 학생들이 관심있는 대학과 학과를 사전 조사하고, 또 대학 입학처의 협조를 얻어 다양한 전공 학과 부스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직업 세계에 대한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진로박람회에서는 선호하는 대학 탐색 및 1:1 입학 상담 지원 △학생 개인별 탐색 보고서 작성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진학(학과) 체험 행사 등 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도록 담임 교사들이 적극 협력한다.

윤태훈 교장은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고민만 하기보다 직접 보고 느끼며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